

## 삼성항공 4배줌 카메라 ECX-1, '94 포토키나쇼에서 '올해의 최우수 카메라상' 수상

삼성항공은 지난 9월 22일부터 독일 쾰른에서 열린 「94 포토키나쇼」에 참가, 유럽 전문사진협회(EISA) 회장과 사진관련전문지협회(TIPA) 회장으로부터 「올해의 카메라상」을 받았다.

포토키나쇼에서 수상한 카메라는 삼성항공이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자체개발에 성공한 전자동 콤팩트카메라 「ECX-1」이다.

카메라부문에서 유럽의 양대 최고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일본 펜탁스에 이어 두 번째이다.

삼성항공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일본 카메라업체가 주도해 오던 세계 카메라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진에 기업 로고가 새겨지는 1회용 카메라(모델명 : 로고보이)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1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된 이 제품은 컴퓨터를 사용해 로고를 인쇄하는 방식을 채택해 색상재현이 우수하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은 현상된 사진의 일부분에 기업의 로고나 문자를 인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홍보용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일본 캐논, 중국서 저가격 카메라 생산 -현지 수요 겨냥, 월 6만대 규모-

일본 캐논은 중국시장 판매용 저가격 카메라를 개발, 9월 말부터 월 6만대 규모로 현지 생산에 착수했다.

캐논은 최근 중국정부로부터 직판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번에 개발한 저가격 카메라를 대당 2백 50元(약 2만 4천원)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다.

캐논이 시장에 선보일 카메라는 수동 고정초점 콤팩트카메라로 구미지역이나 일본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는 구식기종으로 알려졌다. 저가격카메라는 제조자회사인 캐논珠海에서 양산될 전망이다.

중국시장에서 10%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캐논은 이번 저가격 기종의 출시를 계기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리코사를 추격할 방침이다.

## 일본 카메라메이커들 신제품 출시 행렬 -캐논 'EOS-1N', 올림푸스 'OZ 120줌', 아사히 광학 '펜탁스 에스피오 80'-

캐논·올림푸스光學工業·아사히光學工業·코니카 등 일본 주요 카메라업체들이 9월 말 독일에서 열린 세계최대의 사진영상산업 見本市인 포토키나와 연말특수를 앞두고 있

따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캐논과 올림푸스는 각각 一眼리플렉스카메라와 콤팩트카메라 분야에서 업계내 최고 속도의 연속촬영기능을 탑재한 카메라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배율 줌 경쟁과 함께 고속연속촬영도 개발경쟁의 초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캐논은 EOS시리즈의 6번째 기종으로 모터드라이브유닛을 장착하면 1초동안 6장의 고속 연속촬영이 가능한 일안리플렉스카메라 「EOS-1N」을 11월부턴 시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니콘의 「F4-E」가 同 유닛장착시 5.7장으로 자동초점방식 일안리플렉스카메라 중에서 최고속 기종이었다.

EOS-1N은 파인더내에 5군데의 측정거리점이 배치되어 있어 피사체가 파인더의 중심에 없더라도 구도우선으로 자동초점촬영이 가능하다. 측정거리점의 선택은 수동다이얼·자동방식 등 두가지가 있으며 수동·자동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

캐논은 오는 95년초에 이보다 한층더 고속화된 드라이브 유닛을 내장해 1초간에 약 10장의 연속촬영이 가능한 「EOS-1NRS」를 시판할 계획이다.

「EOS-1NRS」는 메인미러에 고정식 반투명 초박막미러

를 채용해 일안리플렉스카메라의 機構상 불가피했던 촬영순간 파인더상의 소실이나 미러작동시의 진동 및 소음을 없앴다. 또한 셔터를 누른 후 촬영을 마치기까지의 시간은 0.006초로 업계최단시간을 기록했다.

올림푸스도 콤팩트카메라 분야에서는 업계최고속인 1초간 4장의 연속촬영을 실현한 3.4배줌 카메라 「OZ 120줌」을 개발, 이달중에 시판할 예정이다. 「OZ 120줌」은 고속모터를 채용함으로써 일안리플렉스카메라와 같은 연속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더욱이 필름의 낭비를 막기 위해 연속촬영은 4장마다 멈추도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사히광학은 본체의 두께가 33.5mm로 업계에서 가장 얇은 줌콤팩트카메라 「펜탁스 에스피오 80」을 10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줌폭은 광각 35mm에서 망원 80mm까지이며 줌영역전체에서 전환없이 0.5m까지 근접촬영할 수 있다.

한편 코니카는 간편한 조작성과 저가격에 초점을 맞춘 콤팩트카메라 「TOPS200-P」를 이달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 카메라는 35mm의 고정초점이지만 자동플래시 및 파노라마 전환, 필름자동되감기 등의 기능을 탑재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 일본 전자업체들, 중국서 비디오카메라 본격 생산

일본 전자업체들이 중국에서의 비디오카메라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성장으로 고급전자제품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여름 일제 전자부품의 관세를 12%로 인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니는 지난 2월부터 上海의 합작회사를 통해 비디오카메라 주요부품을 생산, 수출해 왔으나 관세인하 조치에 따라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완성품 생산에 들어갔다. 소니는 지난해 9월 70%를 출자해 설립한 上海素廣電子有限公司를 통해 내년부터는 연간 15만대 규모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빅터도 작년부턴 닛쇼이와이(日商岩正)와 제휴, 北京廣州등지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내년 봄까지는 월 2천대의 비디오카메라 생산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일본빅터는 北京합작화를 통해 지난 봄부터 VTR재생용 카세트어댑터를 월간 1만개 정도 생산하고 있다.

한편 마쓰시타전기산업 히타치제작소 등도 조만간 비디

오카메라의 본격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일본회사들이 중국에서 비디오카메라의 생산을 준비한 것은 지난 92년 중국 전자공업부가 일본 4개업체에 중국회사와의 합작을 타진해 오면서 진행됐으나 전자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완제품생산이 늦춰져왔다.

일본빅터의 중국관계자는 직장단위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현재보다 저가격의 상품이 개발되면 수요가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국내 고속복사기시장 경쟁 가열

분당 복사속도(CPM) 50매 이상의 고속복사기 시장선점 경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제록스 신도리코 현대전자 등 복사기업체들이 울들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고속복사기 수요를 겨냥, 대형화·고속화·첨단기능화에 초점을 맞춘 55~67CPM사이의 고속복사기 신제품을 지난 9월 중순과 10월사이에 집중 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2~3년간 대다수 복사기업체들이 20~30

CPM 사이의 보급형 제품개발 및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에만 전념해 한동안 식었던 고속복사기시장을 둘러싼 업체간의 시장선점경쟁의 열기가 다시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이처럼 복사기업체들이 고속복사기 부문을 재무장하고 있는 것은 대당가격이 보급형제품의 3~4배 수준으로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음은 물론 사후매출(애프터마켓)측면에서도 신규매출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올해 전체 복사기시장이 20% 안팎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속복사기시장은 대기업 및 전문복사점을 중심으로한 지속적인 수요확대로 3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는 것도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리아제록스는 지난 8월, 1백 CPM의 「제록스 5100」출시를 시작으로 고속복사기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신도리코도 최근 55~65CPM의 「FT 7000」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했다.

현대전자도 11월께 첨단기능을 갖춘 60CPM의 신제품, 벨로즈 5060을 새로 출시, 고속복사기 시장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신도리코 복사기 NT시리즈 4개모델 판매 급증 -시판 두달만에 3천여대 팔려-

신도리코가 지난 7월부터 출시한 종이걸림(잼) 자동제거 복사기를 주축으로 한 「NT시리즈」 4개모델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신도리코는 최근 세계 최초로 자체개발한 잼 자동제거 복사기인 「NT 4000시리즈」 3개모델과 수출전략 기종인 「NT 2040」등 4개모델이 내수시판 두달만에 3천여대 가까이 판매되는 폭증세를 보인데 힘입어 이 기간중 시장점유율을 상반기대비 4%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현재 20여종의 복사기를 판매하고 있는 신도리코는 불과 두달만에 이들 「NT시리즈」 4개모델의 판매비중이 전체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하며 예상보다 빨리 자사의 주력기종으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신도리코는 특히 이들 「NT시리즈」가 현재 약 60~70종이 운용되고 있는 국내 복사기 전체시장에서 출시 두달만에 20% 안팎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모델별로는 7, 8월 합쳐 「NT2040」이 6백 68대 판매된 것을 비롯해 「NT4020」이 9백

29대, 「NT4030」이 5백 49대, 「NT4040」이 8백 25대씩 판매됐으며 7월에 1천 7백 88대, 8월에 1천 1백 83대가 판매됐다.

신도리코는 7, 8월 두달동안 기대이상의 주문쇄도 때문에 주문대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9월부터는 철야작업을 통해서 이들 제품의 내수공급량을 2천 2백여대 수준으로 늘렸다.

### ■ 코리아제록스 중급복사기 동남아 수출

코리아제록스가 5백만원대의 중급복사기를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코리아제록스는 일본 합작선인 후지제록스가 엔高등의 영향으로 저가기종의 채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들 기종을 국내에서 생산, 동남아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양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산이관에 대한 합의를 본 상태는 아니지만 후지제록스측은 연간 2만 5천대 정도의 중급복사기를 코리아제록스가 생산해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지제록스는 중급기종 복사기의 생산을 한국으로 옮기는 대신 고급기종 제품으로 특화하려는 전략이다.

코리아제록스는 한국의 동

화산업과 일본 후지제록스가 자본금을 절반씩 출자한 합작회사이다.

### ■ 현대전자, 복사기 임대사업 개시

현대전자가 복사기 임대 및 유지보수사업에 본격 참여했다.

현대전자는 임대 및 사후매출시장 확대에 따라 그동안 대리점 차원에서 전개해온 복사기 임대 및 유지보수사업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키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전자는 임대 및 유지보수사업의 성패가 서비스조직력에 달려 있다고 판단, 기존 품질보증위주의 서비스팀 외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한 임대·유지보수전담 서비스팀을 새로 구성하는 한편 본사내 기술영업팀을 새로 발족시켰다.

### ■ 삼성종합기술원, 펌프레이저 다이오드 개발

삼성종합기술원은 최근 광섬유증폭기에 사용되는 광원인 파장 9백 80나노m(10억분의 1m)의 펌프레이저 다이오드 및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펌프레이저 다이오드는 레이저의 발진파장이 좁고 높은 광섬유 출력이 요구되기 때문

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광섬유증폭기의 핵심부품이다.

이번에 개발된 펌프레이저 다이오드는 결정성장시 이중제한 단일양자우물(SCH-SQW) 구조를 적용하고 파장조절을 위해 활성층인 인듐 갈륨 비소층에 1%의 압축응력을 주었다.

또 펌프레이저 다이오드 모듈은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열전냉각소자를 사용했고 광점속효율을 40%이상 향상시키는 동시에 광섬유출력을 40밀리와트로 높였다.

삼성종합기술원은 펌프레이저 다이오드 및 모듈 개발을 위해 지난 15개월간 1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고 20여건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다.

### ■ 한국전자, 포토 커플러 개발

한국전자가 광센서의 일종인 포토 커플러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포토 커플러는 광효율이 높은 갈륨비소 적외선발광다이오드와 실리콘 포토 트랜지스터를 각각 입력단과 출력단으로 해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했다.

개발제품은 입출력단의 절연내압이 높고 소형화를 실현했으며 스위칭 속도가 빠른 것

이 특징이다.

작동원리는 입력단에 인가된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 필요한 정보를 출력단으로 보내고 출력단은 이를 다시 전기적 신호로 내보내는 것이다.

한국전자는 이 제품을 10월부터 월 1백 50만개씩 생산, 내수시장에 공급키로 했다.

한편 한국전자는 이번 포토커플러 개발을 계기로 광소자 제품군의 개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일본 닛토전공, LCD 광학필름공장 건설

-내년 1월 착공, 96년 양산-

일본 닛토(日東)電工이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지닌 액정디스플레이(LCD)용 광학필름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닛토電工은 일본 히로시마縣 오노미치市에 약 1백억엔을 투자, LCD용 광학필름공장을 건설한다고 지난 10월 3일 발표했다.

닛토電工은 내년 1월에 착공, 96년 4월부터 새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TFT(박막트랜지스터)방식 컬러 LCD용 필름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계획은 연간 4백만㎡로 세계 최대규모이다.

닛토電工은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

는 최대업체로 새 공장이 가동하면 同社의 생산능력은 현재의 2배로 확대된다.

## 중앙전자, CCTV시스템 개발

-1/3인치 CCD카메라 채용-

중앙전자공업이 3분의 1인치 CCD카메라를 채용한 CCTV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CCTV시스템은 감시모니터가 5.5인치 10인치 12인치 등 세종류이며 카메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감청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5.5인치 제품은 2대의 카메라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카메라를 자동/수동으로 전환해 외부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10인치와 12인치 제품은 선택사양으로 최대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카메라에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에는 유선 리모컨의 장착이 가능하며 중앙전자에서 만든 비디오 도어폰의 도어카메라와 연결하면 방문객의 모습을 확인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능도 부가돼 있다.

이 시스템은 아파트 슈퍼마켓 주차장 등 사람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및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일본 전신전화, 홀로그래피 動畫像재현에 성공

일본전신전화(NTT)는 세계최초로 홀로그래피 動畫像재현에 성공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홀로그래피화상은 물체에 레이저光을 비춰 발생하는 빛의 간섭상태를 필름으로 촬영, 재생할때는 필름에 별도의 레이저光을 쏘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3차원의 입체상을 떠오르게 한다.

NTT가 시험제작한 장치는 피사체에 비추는 레이저光의 강도를 높여 필름의 노광시간을 단축, 1초간에 18장면의 속도로 연속기록할 수 있도록 할 뿐아니라 한장면에 기록하는 정보량을 늘리는 연구도 추진했다. 이 결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를 VCR과 똑같이 촬영·재현할 수 있게 됐다.

NTT는 필름을 영화처럼 고속으로 돌림으로써 75초간의 흑백영상을 재현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同社는 앞으로 액정패널처럼 순간적으로 영상을 전환할 수 있는 패널을 사용, 장시간의 동화상재현을 실현해 새로운 영상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

다. **진성시스템 사진편집기 '포름' 출시**

진성시스템이 영상처리기술을 이용, 사진을 CD(콤팩트디스크)로 제작할 수 있는 포름(PHO-ROM)을 개발했다.

포름이란 美國의 코닥社가 공급하는 포토CD와 CD롬의 장점만을 이용, 컴퓨터에 의한 사진촬영 및 일반인에게 멀티미디어 앨범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다. 진성시스템은 포름의 내수 판매는 물론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개발된 포름은 사진관에서 순간포착이나 유아 촬영시의 어려움 등을 컴퓨터 지원에 의해 연속 포착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장면만을 출력해 저장할 수 있다. 또 가정에 보관된 수천장의 사진을 한장의 CD에 분야별 시간별 종류별로 저장, 검색은 물론 수정이나 편집이 가능하다.

포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닥의 포토CD와 비교해 볼때 사진의 선명도는 포토CD보다 우수하며 저장할 수 있는 사진도 포토CD의 1백매보다 3~60배나 많은 3백~6천매까지 가능하다고 진성시스템측은 밝혔다. 특히 포토CD의 가격이 1억 3천만~2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포름은 4천만~6천만원에 불과, 수입대

체는 물론 대량의 수출도 기대된다.

**유성정보통신, 사진출력용 잉크젯 프린터 개발**

앱슨 스캐너 판매 전문업체인 유성정보통신은 그래픽 사업 부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진 출력용 A3용지 크기의 컬러 잉크젯 프린터(모델명 BJMAX3)를 개발, 시판한다.

잉크젯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프린터는 승화형 열전사프린터 가격의 20%수준으로 공급되며 인쇄 품질은 고급형 기종과 큰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회사측은 밝히고 있다.

이 프린터를 이용해 사진을 출력할 경우 사진관에서 인화한 사진에 비해 손색이 없는 선명한 해상도와 컬러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지의 출력까지 가능, 기존의 승화형 열전사프린터에서는 불가능했던 대형 포스터의 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정보통신은 이 프린터의 출시로 기존의 스캐너와 조합된 그래픽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캐너는 사진이나 필름을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도구로 이를 프린터와 연결하면 스캐너로 입력한 사진 등 화상을 그대로 프린터로 출력, 사

진을 인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 사진틀 시장 겨냥을 위해선 디자인 살리고 고부가가치화 기해야**

사진틀은 실내장식용 소품의 일종으로 주 수요층은 청소년 등 젊은층이다.

일본 통산성이 발간하는 공업통계에 의한 일본의 소품 시장을 포함한 사진틀 생산액은 88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88년 생산액은 190억엔, 89년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00억엔, 90년은 9.0% 증가한 218억엔, 91년은 22.9% 증가한 268억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1년 기준 생산회사는 151개社이다. 91년까지의 생산증가는 경기호황으로 인한 소득수준향상 등에 따른 소비증가 때문인데 92년 이후 경기침체 및 재고누적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틀 생산업체의 90% 정도는 종업원 20명 이하의 중소기업체로 수입품 등과의 경쟁력이 약화돼 있어, 해외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다른 업종으로의 진출을 통한 경영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생산업체는 후지칼라, 코니카, (주)치쿠마,

(주)하쿠바 등이다.

사진들 수입을 목제 사진들과 비금속제 사진들로 분류해 파악해 보면 목제 사진들의 수입은 91년에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이후 정체상태에 있는데 비해 비금속제 사진들은 90년 이후 줄곧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경공업제품과는 달리 사진들 수입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확대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국내생산이 계속 증가해 재고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제사진들의 수입은 90년 24억엔 규모에서 91년에는 전년대비 30.7% 증가한 31억 9천만엔, 92년에는 0.6% 감소한 31억 8천만엔, 93년에는 0.9% 감소한 31억 5천만엔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국은 대만, 태국, 중국, 미국 등인데 90년 이후 최대 공급국인 대만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대신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후발개도국산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93년 기준 수입시장 점유율은 대만 44.8%, 태국 25.7%, 미국 4.9%, 중국 4.8%, 인도네시아가 4.1%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93년의 시장점유율을 90년과 비교해 보면 대만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93년에

• 사진들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

국별	1991	1992	1993
▲목제 사진들(HS: 4414.00)			
한국	46 (1.4)	64 (2.0)	20 (0.6)
중국	91 (2.8)	100 (3.1)	152 (4.8)
대만	1,721 (5.4)	1,585 (49.5)	1,410 (44.8)
태국	623 (19.5)	687 (21.6)	808 (25.7)
말레이시아	133 (4.2)	87 (2.7)	115 (3.7)
인도네시아	30 (0.9)	96 (3.0)	130 (4.1)
이탈리아	142 (4.4)	185 (5.8)	124 (3.9)
미국	85 (2.7)	124 (3.9)	153 (4.9)
총계	3,199 (100.0)	3,180 (100.0)	3,150 (100.0)
▲비금속제 사진들(HS: 8306.30)			
한국	360 (53.3)	198 (47.0)	156 (47.0)
중국	14 (0.2)	30 (7.1)	29 (8.7)
대만	43 (6.4)	25 (5.9)	24 (7.2)
말레이시아	5 (0.7)	7 (1.6)	61 (18.4)
영국	33 (4.9)	32 (7.6)	26 (7.8)
프랑스	16 (2.4)	12 (2.9)	12 (3.6)
이탈리아	77 (11.4)	39 (9.3)	16 (4.8)
미국	16 (2.4)	21 (4.9)	25 (7.5)
총계	675 (100.0)	421 (100.0)	332 (100.0)

[자료:일본 무역협회]

註:①( )는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②총계는 기타국가 포함 실적임.

는 90년대비 10% 포인트 이상의 점유율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에 태국의 경우 90년 16.7%에 불과하던 시장점유율이

93년에는 25.7%로 상승했고, 중국도 0.8%에서 4.8%로, 말레이시아도 0.6%에서 3.7%로 각각 점유율이 상승했다.

對韓 수입의 경우 90년의 3천 6백만엔에서 93년에는 2천 만엔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의 시장점유율도 90년 1.5%에서 93년에는 0.6%로 하락했다.

한편 비금속제 사진들의 수입은 버블경제 절정기였던 91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91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고누적 및 일본업체의 생산강화로 인한 공급확대로 수입품의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93년을 기준으로한 비금속제 사진들의 주요 공급국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대만 등인데 최대공급국인 한국은 4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별 수입시장 점유율을 90년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말레이시아가 2.1%에서 18.4%로 급격히 확대됐고 중국, 미국 등도 높아지고 있다.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한국의 경우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무세이다. 기타 세율로는 수입시 세관에서 수입 FOB가격의 3%에 해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일본의 사진틀 수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90년 이후는 매년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출을 비금속제와 목제로 구분해 살펴보면 비금속제는 93년 기준 2억 1천 9백만엔을 기록했으며 주 수출대상국은 한국, 프랑스, 홍콩, 대만 등이다. 목제는 93년 기준 4천 6백만엔 규모에 불과하며 주 수출대상국은 싱가포르, 미국, 대만 등이다.

소비자들의 최근 구매패턴을 품질 및 디자인면에서 살펴보면 프레임이 종래보다 굵고 고급 이미지가 풍기는 제품을 더욱 선호하고 있으며, 자연미를 풍기는 제품,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 등도 청소년층을 위주로 인기가 있다. 또 크기가 매우 다양한데 일반 보통사진 1장을 끼울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크기가 여러가지인데, 요즘은 각 회사별로 파노라마 사진을 끼울 수 있도록 세로폭이 가로폭보다 훨씬 넓은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도쿄 등의 대도시 백화점, 슈퍼마켓, 잡화점 등 각종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틀의 경우는 일본·한국·대만·태국산 등이 나란히 진열돼 판매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시 원산지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

품질,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고 판매점측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이나 디자인 등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적합하고 가격이 품질과 부합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데, 현재 주로 판매되는 가격대는 1천~3천엔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물론 유리나 알루미늄, 크리스탈 등 고급재질로 제작된 제품의 경우 5천엔 및 1만엔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목제 사진틀의 경우 대만·태국산 등 여타 아시아지역산에 비해 한국산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수입상들은 목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은 수입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에 대해서는 단순한 목제품보다는 프레임에 가죽이나 고급천을 입힌 제품, 프레임 재질이 비금속인 제품 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일본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하고 제품선택에 있어서 까다롭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돼 있어야 하며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사진틀은 다품종 소량 제품이기 때문에 소량소액 수주에도 적극 관심을 보여야 한

다. 그리고 클레임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일본 수입상의 결정적인 對韓거대회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레임 발생시에는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한국산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경공업제품과 같이 사진틀도 가격면에서 대만, 태국 등 아시아산에 비해서는 고가격인 편이며 일본산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

보통 사진 1장이 들어갈 수 있는 비금속제품의 가격을 보면, 한국산이 1천~2천 4백엔대, 대만산이 8백~2천엔대, 일본산이 1천~3천 5백엔대를 이루고 있다. 또 한국산 목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대만·태국·중국산에 비해 워낙 밀리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 일반 소매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비금속제품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질의 고급화, 디자인의 다양화를 통한 수입상 및 소비자의 선호도를 충족시켜야 하며, 현재와 같은 엔高 상황에서는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수출확대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광전자연구소 생산 시설 한국 이전



光전자그룹이 일본에 있는 光반도체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전면 이관함과 동시에 생산 규모도 현재의 10배로 대폭 증설한다.

최근 日本經濟新聞보도에 따르면 교토 우지(宇治)시에 있는 受發光素子업체인 光電子연구소는 한국 이리에 光반도체 신공장을 건설, 일본내 전공장을 이관키로 하고 최근 현지에서 공장건설에 착수했다.

이 공장은 연내 1차공사를 마치고 연간 2만 5천매(5인치 웨이퍼기준)의 光반도체 및 바이폴라(쌍극성)반도체를 생산하고 97년까지 추가 증설공사를 실시, 총 7만 5천매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일본 생산규모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총5백 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光반도체는 가전제품의 리모컨 및 CD(컴팩트 디스크)의 판독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円高로 인해 일본産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전면 이관케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한국산 제품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의 가전 및 OA(사무자동화)기기공장 부품납품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94년 3월 결산기에 총 1백 3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光반도체 분야에서 샤프와 견주는 실력을 보이고 있다.

### 국내 복사기업계, 성수기 불구 제품판매 예상 밖 부진

- 9월중 6천 6백대 판매 그쳐

당초 예상을 깨고 9월중 복사기 판매신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사기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비수기인 7월과 8월에 각각 7천3백50대와 6천6백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대비 각각 30% 안팎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던 복사기판매가 성수기인 9월에는 당초 호황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불과 6천 6백50대만이 팔려 전년 동월 대비 7%정도의 소폭 신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9월중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생산 및 판매에 다소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며 '10월 이후 판매가 다시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7,8월중 폭발적인 인기로 시장확대를 주도했던 신도리코의 잼자동제거복사기 「NT4000」시리즈의 판매열기가 9월들어 점차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도리코는 7월초

「NT4000」시리즈 발표후 이들 신제품의 폭발적인 판매호조로 7월 한때 시장점유율이 전월대비 10%포인트 높아져 최고 50%까지 달했으나 9월 들어서는 2천6백대를 판매해 1%로 상반기보다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낮아졌다.

반면 신도리코의 독주에 맞서 7월이후 대대적인 광고관측 활동을 전개한 롯데캐논은 9월 들어 1천6백60대를 판매, 7월중 19%에 불과하던 시장점유율을 단숨에 25%선까지 끌어올렸다.

코리아제록스도 7월 한때 시장점유율이 22%이하로 크게 떨어졌으나 8월이후 대대적인 관측 활동을 전개해 9월 들어선 1천5백39대를 판매, 23%선을 회복했다.

한편 3·4분기 전체판매량에 있어선 신도리코가 8천8백 51대(43%)를 판매해 단연 수위를 지켰으며 코리아제록스와 롯데캐논이 각각 4천7백39대(23%)와 4천7백10대(22.9%)를 판매, 근소한 차이로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 반도체레이저 특허출원 활발

- 최근 5년간 연 평균 82%씩 증가 -

컴팩트디스크(CD), 레이저

프린터, 바코드리더 등에 쓰이는 반도체레이저기술이 레이저분야의 중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레이저기술 가운데 기체레이저나 고체레이저에 비해 반도체레이저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이 활발하다.

최근 5년간 출원동향을 보면 반도체레이저분야의 출원은 연평균 82%씩 늘고있다. 특히 내국인의 출원은 89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백25건으로 연평균 1백13%씩 급증했다. 같은 기간중 일반레이저분야는 연평균 13%씩 늘어나 반도체레이저분야의 출원이 유독 급증했음을 알수 있다.

반도체레이저는 반도체소자중 현재 시장이 가장 크고 기초가 되는 광반도체소자의 한 분야로 LCD(액정표시장치)와 더불어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다.

### ■ 삼성전관, 分光분석시스템 개발

— 색채연구용 파장 20초까지 순간 측정 가능 —

삼성전관이 반도체 및 가전기기등의 색채연구에 사용되는 分光분석시스템을 국산화했다.

최근 삼성전관은 30여억원을 들여 빛의 밝기 반사율등 빛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분석평가하는 분광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분광분석시스템이란 빛을 파장별로 나누어 분포 특성을 그래프로 분석하는 기기로 광학 반도체의 플라즈마 가전디스플레이등 전자기기는 물론 페인트도료 섬유 인쇄 의류등의 색채관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관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제품을 국산화해 연간 3백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이회사가 이번에 국산화한 분광분석시스템은 용도에 따른 6개 모델이며 2백~1천1백nm(1nm는 10억/(m)까지의 파장을 최대 20초까지 순간 측정이 가능하다.

삼성전관은 이제품이 광원의 색좌표 밝기 투과율등을 측정할 수 있고 시간 변화에 따른 빛과 색채의 모든 분석이 가능해 해외시장에 수출도 추진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광분석시스템은 빛을 파장(주파수)별로 나누어 분포 특성을 그래프나 수치로 분석하는 기기이며 일반인이 보는 가시광선(빛)은 한정적이고 추상적이며 밝거나 어둡다는 일반적인 분석뿐인데 반해 이

시스템은 빛에 관한 눈에 보이지않는 모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 일본 샤프사, 필터없는 액정프로젝터 개발

일본샤프가 컬러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색의 화상을 재생할 수 있는 액정프로젝터를 개발했다고 日經産業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샤프가 개발한 액정프로젝터는 특수유리를 사용, 삼원색(赤靑綠)으로 분리한 빛을 렌즈를 사용한 액정패널의 표시단위(도트)에 모아 컬러화상에 재생하는 방식이다. 필터가 없는 만큼 화상은 현재의 8배정도 선명해진다 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샤프가 액정프로젝터에서 사용하게되는 특수유리는 특정의 색만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투과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샤프는 이같은 기술을 응용, 액정프로젝터의 시제품을 만든 결과 특별한 비용 상승요인이 없는 대신 컬러필터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액정프로젝터는 액정표시장치(LCD)의 뒷면에서 강한 빛을 쬐 약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스크린에 화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으로 당장에는 노트

복합PC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삼성항공, 중국이어 멕시코에 카메라공장 내년 7월 가동

삼성항공이 카메라 해외생산을 대폭 늘린다.

삼성항공은 콤팩트카메라 주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능력을 확충키위해 중국 천진에 카메라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멕시코와 인도에도 카메라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유럽에는 현지업체와의 협력으로 기술개발정보센터를 마련, 고급광학기술확보에 나선 방침이다.

이회사는 그룹이 멕시코에 건설할 전자복합화단지에 부지를 마련, 내년 7월개부터는 연간 1백만대 생산규모의 카메라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삼성항공은 또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카메라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에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세부 사업타당성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항공은 유럽업체와의 협력으로 고급광학기술을 확보, 카메라렌즈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장비제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항공은 이미 중국 천진에 연간 1백만대 생산규모의

카메라공장을 건설, 지난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항공은 엔高영향으로 해외로부터 카메라주문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1억2천만달러, 내년에는 2억달러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 ■ '코닥 골드 400' 필름 Photokina'94에서 '올해의 필름상' 수상

코닥은 지난 9월 21일에서 27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Photokina'94 전시회에서 '코닥 골드 400' 필름으로 '올해의 필름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저명한 사진잡지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필름테크놀로지분야 최고 제품의 영예를 코닥필름에게 부여한 유럽영상, 음향협회는 심사말을 통해 「코닥의 첨단 필름 제조공법인 T-그레인 에멀전공법으로 개발된 '코닥 골드 400' 필름은 초미립자의 섬세한 입자와 탁월한 색상 재현력 및 뛰어난 입상성으로 인해 콤팩트형 자동카메라에 이상적인 필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심사를 맡은 유럽영상, 음향협회는 '코닥 골드 400 필름은 정상노출로도 -2stop에서 +4stop까지 촬영이 가능한 폭넓은 노출관용

도를 보유하고 있어 빛이 부족한 장소에서나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촬영 등 어떠한 촬영 조건하에서도 훌륭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다용도 필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닥은 금번 Photokina'94에서의 '올해의 필름상' 수상을 계기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으로 보다 나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에 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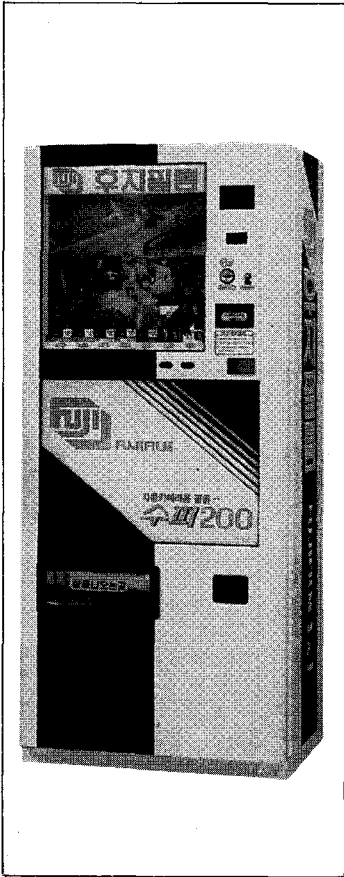
## ■ 한국후지필름(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필름전용 자동판매기 설치

한국후지필름(주)은 최근, 필름전용 자동판매기(모델명, LVM-200B)를 개발,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한국후지필름은 올초부터 약 2억원을 투입해 필름자동판매기를 개발, 시제품 50대를 생산해 최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한국후지필름이 개발, 설치하고 있는 필름전용 자동판매기는 자동카메라용 필름 수퍼200을 포함, 후지에서 나오는 3종의 필름과 2종의 일회용카메라 후지퀵스냅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후지필름은 필름전용 자동판매기로는 여러장의 1천



▲ 한국후지필름이 최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작업에 들어간 필름전용 자동판매기(모델명, LVM-200B)

원권 지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기계의 지폐판독률을 90% 이상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후지필름은 앞으로 경인지역에 28대, 전국 각 지방에 22대 등 유원지와 교통 중심지역을 위주로 필름전용 자동판매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 (주)롯데캐논, 시중은행에 휴대용복사기, 'FC-330' 설치

(주)롯데캐논은 휴대용복사기, 'FC-330' 160대를 최근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 설치, 은행창구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롯데캐논이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 설치한 복사기, 'FC-330'은 가로 36cm, 세로 40cm, 높이 10cm 크기로, 은행창구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창구직원이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도 관련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롯데캐논은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에도 시범적으로 몇몇 점포에 'FC-330'을 설치하고 있어, 앞으로 'FC-330'의 은행창구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후지필름, 자동카메라용 필름 '수퍼 200' 삼성카메라 사은행사에 공급

한국후지필름(주)는, 새의 유러피안상을 수상한 삼성 FX-4 콤팩트카메라의 수상 기념 사은행사에 사은품 공급업체로 참여했다.

이미 수퍼 HGⅡ로 '93/'94년도에 두개의 유러피안상에

선정된 바 있는 후지필름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번 TIPA와 EISA에서 수여하는 콤팩트카메라 부문의 수상자인 삼성카메라에 자동카메라용필름, '수퍼 200'을 공급했다.

## 동양 최대규모의 스튜디오 '포토베스트 9' 오픈 - 상업사진, 웨딩, 글래머, 프로필사진, VTR 촬영 및 편집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스튜디오를 경영해 오던 전문 사진작가 9명이 모여 최근 '포토베스트 9' 스튜디오를 오픈해 화제가 되고 있다.

'포토베스트 9' 스튜디오는 그 규모면에서 50여점의 세트가 준비된 세트장과 메이크업실, 드레스숍을 갖추고 있으며 40여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까지 겸비하고 있어, 명실공히 동양 최대 규모임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포토베스트 9'에서는 각종 상업사진, 웨딩, 글래머, 프로필사진, VTR 촬영 및 편집 등 대부분의 사진을 총망라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특히 웨딩사진의 경우 그동안 야외촬영에만 의존해 오던 것을 자체 세트장에서도 촬영할 수 있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0월 1일 오픈한 '포토베스트 9' 스튜디오

한편 한국후지필름(주)에서는 '포토베스트 9' 스튜디오가 개설됨에 따라 국내 스튜디오 사진의 육성을 위해 최신 기자재 보급 및 기술협력 등을 계속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제록스(주), 엔지니어링시스템사업 대폭 강화**

코리아제록스(주)는 '엔지니어링시스템사업의 대폭강화'라는 영업정책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로 자회사인 유강교역(주)의 일부조직인 ELS 사업부를 코리아제록스(주)로 편입, 엔지니어링시스템사업을 강화했다.

유강교역(주)는 1987년에 설립된 코리아제록스(주) 자

회사로서 대형도면복사기, Plotter, 종합도면관리 출도시스템(EDMICS), 칼라이미지 출도시스템(HandsBig) 등의 엔지니어링시스템기를 시판, 서비스해 온 OA전문회사이다.

금번 새로운 조직개편 및 강화에 따라 코리아제록스(주) 시스템사업부로 편입한 EIS사업부는 현재 구성인원 50여 명으로, Plotter, 종합도면관리 출도시스템(EDMICS), 칼라이미지 출도시스템(HandsBig) 등의 시판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코리아제록스(주)는 엔지니어링시스템 사업에 적극 참여, 사무OA 기기에서 산업용OA기기 및 도면관리시스템까지 더욱 폭 넓고 다양한 OA기기를 취급하는 종합OA전문회사로서 그 사업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